

미얀마 바간 문화유산 ODA 사업과 파야똥주 사원 발굴조사의 고고학적 의의*

전 범 환** · 김 용 준***

요약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문화유산 분야 ODA 사업은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은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1980년대 이전부터 이 분야 사업을 진행했던 일본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늦게 시작하였다. 새로운 분야의 업무를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한국은 어렵게 시작한 문화유산 분야 ODA 사업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중이며, 한국문화재단이 그 중심에 있다. 한국문화재단은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유산 분야 ODA 사업의 대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현재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다른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크메르 유적의 보존복원과 달리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벽돌 건축물과 관련된 것으로 바간(Bagan) 파야똥주 사원(Phaya-Thone-Zu Temple)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제 2년차의 기초조사가 진행되고 추후 벽화에 대한 보존처리가 진행될 미얀마 바간에서 한국 팀은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융·복합적(multi-disciplinary)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2019년 진행된 파야똥주 발굴조사에서는 기존 바간 지역 고고학조사에서는 처음인 담장

* 이 글은 2019년 한국문화재단이 진행한 “미얀마 바간 벽화 보존처리 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을 기반으로 한 논문이다.

** 한국문화재단 문화유산ODA팀 팀장, bumhwan@chf.or.kr

*** 한국문화재단 국제교류팀 위촉연구원, akedmina@naver.com

이 지하에서 노출되었고 현재 지상에 잔존하는 담장들과 연결되는 13세기 또는 그 이전 시기의 구조물이 파야똥주 하부에 자리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현장에서 수습된 목탄의 연대측정 등 과학적인 분석이 조사결과와 종합적으로 고찰된다면 파야똥주 사원의 건립과 그 이전 시기 건축물의 관계가 조금씩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ODA, 파야똥주 사원, 바간, 융·복합적 접근, 발굴

I. 머리말

2019년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예산은 3조 2천억 원(2019년 기준)에 이른다. 한국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최대의 공동 목표로 삼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Gs)에 맞춘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주로 교통, 보건, 교육 분야에 가장 많은 ODA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로의 확대를 기조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유산 분야의 ODA 사업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문화재단은 문화재청의 지원으로 2013년 라오스 홍낭시다(Hong Nang Sida) 유적의 보존복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도 문화유산ODA 사업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DR 콩고,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소규모의 ODA 사업이 진행 또는 준비 중에 있다. 미얀마에서는 2013년 바간고고학박물관의 보존처리 장비 지원을 시작으로 하여 2018년부터는 바간(Bagan)의 파야똥주(Phaya Thone Zu) 사원의 벽화보존처리와 수원국

의 역량강화에 집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유산ODA 사업 중 2019년 바간 파야똥주 사원에서 진행되었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2019년에 진행되었던 파야똥주 사원 주변의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파야똥주 사원의 원(原) 기단부 및 담장에 대한 조사내용과 그 고고학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미얀마 문화유산ODA 사업과 파야똥주 사원

2016년 8월 24일 미얀마 바간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차욱(Chauk)의 서쪽 24km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진도 6.8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 지진은 바간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었는데, 3,822기의 유적이 자리하고 있는 바간에서 400여기 이상의 사원, 승원 그리고 탑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미얀마 정부는 세계 각국에 지진피해의 복구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유네스코 및 각국은 응급한 조치를 지원하였고, 특히 유네스코(UNESCO)는 분야별 전문가를 바간에 파견하여 지진 피해에 대한 면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1. 바간고고학박물관(Bagan Archaeological Museum) 보존처리 장비 지원

미얀마는 바간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현 정권이전 군부 정권 때부터 진행해왔다. 1996년 미얀마는 바간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반려되었고 이후 2014년 바간이 아닌 뿔 고대도시들(Pyu Ancient Cities)이

미얀마의 첫 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후에도 미얀마 정부는 바간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한국문화재재단은 2013년부터 바간고고학박물관의 보존처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작은 규모의 예산으로 진행한 이 사업을 통해 2017년에는 바간고고학박물관 수장고의 재질별 분할공사를 지원하였고 이듬해인 2018년에는 이 수장고의 보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과 함께 항온항습기의 설치를 지원하여 유물의 안정적인 보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실질적인 보존처리에 대한 현지 교육을 통해 한국문화재재단이 지원한 장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 미얀마 문화유산ODA 사업에서의 새로운 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유산ODA의 주된 콘텐츠는 유적의 보존 및 복원에 치중되어 진행되고 있다. 2019년 미얀마에서 재단은 문화유산 ODA 사업의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문화유산ODA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과의 교류 그리고 국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의 추진을 시도하였다.

2019년 미얀마 ODA사업은 특히, 역량강화에 많은 비중을 두고 새로운 시도를 해 보았는데, 첫 번째가 사업과 관련된 특강의 개설이다. 특강은 수원기관 인력들의 지식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으며 ‘아시아의 불교 문화유산’이라는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아시아의 불교문화유산 중 탑, 동굴사원, 건축물 등 인도의 불교유적과 미얀마와의

1)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분야 최고의 정책기구.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02/L02_S01_01.jsp

연관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강 중 특별히 인도에서 쉬리칸트 자다브(Shreekant Jadhav) 교수를 초빙해 아잔타, 중국의 벽화에 대한 특강이 진행되었고, 미얀마 종교문화부 테인 르인 박사(Dr. Thein Lwin)를 초청하여 바간과 아시아의 불교교류에 대한 내용으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불교국가인 미얀마 직원들의 관심은 매우 높았으며 업무시간 이후를 이용해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31명의 직원들이 특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였다.

두 번째 2019년 하반기에는 지역주민들과의 교감을 위한 생각에서 출발한 고고학체험학교다. 향후 가까운 미래에 바간 유적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어린 친구들에게 유적에 대한 소중함과 유적관리의 필요성을 알려주려고 한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다.



〈그림 1〉 고고학 체험학교(파야똌주 그리기 대회)

고고학체험학교는 최근 한국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체험을 주별로 구성하여 총 6주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고고학에 대한 기본 이해와 발굴현장에서의 유물수습과 실측 그리고 본인이 실측하고 수습한 유물을 다시 접합하는 과정을 통해 발굴과 보존처리 과정에 대

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그리고 바간 시대 유적과 시기가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석기 만들기 수업을 통해 구석기에 대한 이해와 미얀마 고인류에 대한 설명을 했다. 체험학교 프로그램 중에는 파야똥주 사원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파야똥주 사원 그리기 미술대회를 진행하였다. 미술대회에는 총 56명의 초등학생들이 참석하였고, 미술대회의 결과물 중 우수한 작품을 가지고 2020년 미얀마 달력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기존의 문화유산ODA사업은 유적과 유물에 대한 집중적인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2019년 한국문화재단이 미얀마에서 진행한 문화유산 ODA 사업은 바간의 유적을 지키고 함께 보호해 나가야 하는 당위성을 서로에게 인식시켜 주었다. 미래 세대에게도 이러한 의무감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작을 알려준 점에서 효과성이 매우 높게 평가된다.

3. 바간 파야똥주 사원과 벽화 보존처리 사업

(1) 파야똥주 사원

보존처리 장비의 지원과 역량강화 사업이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던 2016년 8월 발생한 지진 이후 미얀마 정부가 요청한 국제사회의 도움에 대해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친 현황조사와 사업 타당성여부를 검증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와 미얀마 정부와의 협의를 토대로 바간의 여러 사원 중 파야똥주 벽화에 대한 보존처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파야똥주 사원은 바간의 남동쪽 민난투 마을(Minnanthu Village) 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1992년 발간된 인벤토리(Pichard 1992)를 바탕으로 미얀마 정부에서 지정한 파야똥주 유적의 번호는 동쪽부터 477, 478, 479로 불리고 있다. 파야똥주는 동-서 약 27m, 남-북 17m 크기의

장방형의 기단부에 조성되었으며 세 개 건축물을 합한 크기는 길이-너비-높이가 각 24m, 12m 16m 정도인 장방형 형태를 하고 있다.

바간에는 3,822개의 건축물(사원, 불탑, 승원 등)이 있는데 파야똌주 사원은 세 개의 건물이 서로 작은 복도로 이어져 하나의 큰 건물을 이룬다. 세 개의 사원이 하나의 기단부에 있는 형태인데, 바간에서는 유일한 형태의 건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바간 지역의 대부분의 사원과 탑이 동향(東向)인데 비하여 파야똌주 사원은 북향(北向)을 하고 있는 것 또한 파야똌주 사원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파야똌주라는 단어의 의미는 세 개의 탑이다. 건립 연대는 13세기로 추정되고 있으나, 사원에 대한 유래를 살필 수 있는 명문이나 역사적 기록은 아직까지 발견된 것이 없고 건립자에 대한 사실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파야똌주 사원이 13세기로 추정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파야똌주 내부에 그려진 벽화와 관련이 깊다. 파야똌주 사원의 벽화들은 13세기 회화 중 가장 완성도가 높다. 477사원에는 80퍼센트 이상의 벽화가, 50퍼센트 가량의 천장벽화가 남아 있다. 478사원에도 대략 비슷한 비율의 벽화가 남아 있다. 479사원에는 벽화가 없으며 연대가 좀 더 내려오는 낙서와 그 이후에 그린 스케치의 흔적만이 남아 있다. 파야똌주 사원의 벽화들은 바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들이 혼합된 하나의 혼성체를 나타낸다. 즉, 미얀마 북쪽의 이웃 불교 나라에서 밀교가 번성했던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탄트릭(Tantric) 이미지와 혼합된 본생담(本生譚, Jātaka)과 부처의 마지막 생애 장면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공덕 쌓기를 계속해서 강조한다. 민난투 마을과 옛 바간 근처의 작은 군락 주변에 이러한 회화양식이 집중된 것은 한동안 이 지역에 밀교를 따른 공동체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Galloway 2019).

(2) 파야똌주 벽화 보존처리 사업

2016년과 2017년에 진행된 지진피해 현황조사 및 타당성 조사팀은

기존 문화유산ODA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했던 (크메르)건축물의 보수·복원에서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문화재청의 의지를 반영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벽화보존처리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사원의 선택은 벽화의 보존처리가 필요한 사원 중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며,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며, 미얀마에서 보수를 원하는 곳, 회화적 가치가 높은 곳 등을 우선순위로 정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파야똥주 사원이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사원으로 평가되었다. 이후 미얀마 정부와 최종 논의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에 착수하였다.

파야똥주 벽화 보존처리 사업은 2018년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는데, 2018년에는 파야똥주 사원의 벽화, 구조 및 지반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진단과 현황파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는 2018년의 진단에 따른 보강방안, 처리방안 등 세부적인 의견과 보존처리 방안이 논의되고 연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파야똥주 벽화의 보존처리가 2020년부터 진행된다.

Ⅲ. 파야똥주 사원 고고학 조사

파야똥주 사원이 미얀마 바간에 있기 때문에 미얀마와 바간 지역의 지리적 위치 및 자연환경에 대해 언급하고 그와 함께 역사 및 고고학적 환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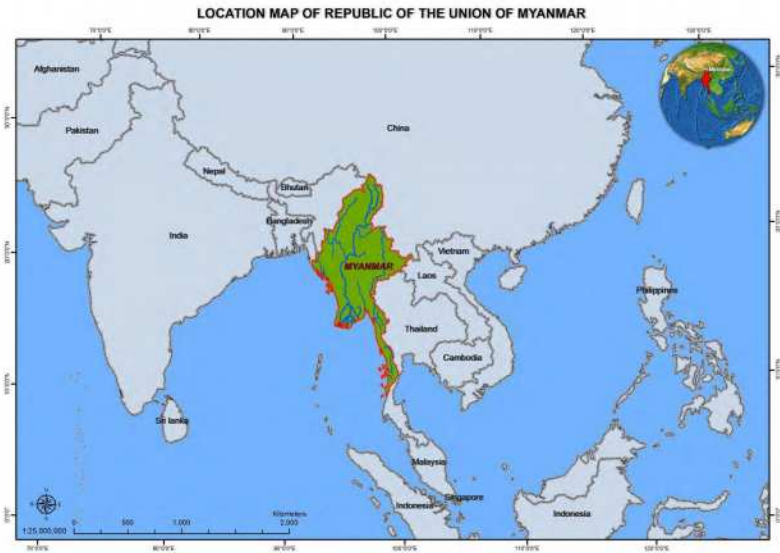
1. 조사지역 현황

(1) 지리적 위치 및 자연환경

국가명인 미얀마²⁾ 혹은 버마(특히 미국에서)는 모두 바간 왕조시대

2) 미얀마의 기본 정보 및 자연 환경은 다음 온라인 백과사전 정보를 참조했다.

를 주도했었던 민족명이자 언어인 바마(bəmà, Bamar)로부터 유래했다. 자국어로는 ပြည်ထောင်စု ၿာ်းမာ်း မြေမာ်း နိုင်ငံနော်ဝ်이며 이는 미얀마 연방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이란 뜻이다. 미얀마의 총 면적은 678,500km²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국가 중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는 40번째로 크다. 북서쪽은 방글라데시와 인도, 북쪽은 중국, 동쪽으로는 라오스, 동남쪽으로는 태국과 접하고 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서단에 위치하고 있다. 미얀마의 주요 산맥들과 강들은 북에서 남으로 뻗어있다. 미얀마 중부의 평원을 흐르는 에아워디(Ayeyarwady or Irrawaddy) 강과 그 지류들은 미얀마 총면적의 3/5을 적시는 주요 강이다.



〈그림 2〉 미얀마의 지리적 위치

David I. Steinberg Maung Htin Aung Michael Arthur Aung-Thwin., Myanmar Encyclopaedia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place/Myanmar> (Last Updated: 06, Mar 6, 2019)

바간(위도 21°10', 경도 94°52')은 건조한 중부 평원의 에야워디 강 동편에 인접해 있고, 강과 가까운 저습지를 제외하고는 농업이 매우 불리한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다. 바간 고고학 구역(The Bagan Archaeological Zone)은 13×8km(104km²) 면적으로서, 구 바간(Old Bagan)을 중심으로 북쪽의 냐웅 우(Nyaung U)와 남측의 신 바간(New Bagan)을 포함하고 있다.³⁾

수천이 넘는 불교건축을 위해서는 지역 농업생산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발굴·복원된 구(舊) 바간 성곽은 제법 넓은 해자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해자는 강의 수위가 현재보다 높거나 강수량이 풍부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바간 불교 건축의 전성기는 전 지구적 중세 온난 기(Medieval Warm Period, 약 950년~1250년)에 해당한다. 바간이 속한 중부 평원 지역은 현재보다 많은 강수량에 기초한 농업이 발달했었고, 이를 통해 바간 왕조가 중부 지역 및 미얀마 전 지역을 정치·문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Hudson 2004).

(2) 역사 및 고고학적 배경

미얀마 고고학에서 가장 연구가 활발한 시대는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후 11세기까지 번성한 뽀 도시-국가(Pyu City-states) 시대다(Stargardt 1990). 바간 왕조 시대의 역사적 기초가 되기도 한 이 시대 중심 도시들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대표적 도시 유적인 할린(Halin), 베익타노(Beikthano)와 쉬리 크쉐트라(Sri Ksetra)는 미얀마 최초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⁴⁾

바간 지역의 가장 오래된 고고학 흔적은 동남아·남중국에 분포하고 있는 안야티안(Anyathian)문화로 불리는 구석기 시대 유적이다. 안

3) UNESCO. "Bagan Archaeological Area and Monuments".

<http://whc.unesco.org/en/tentativelists/819/>

4) "Pyu Ancient Cities". <http://whc.unesco.org>. Retrieved 16 January 2018.

야티안은 ‘상(上) 버마인(Man of Upper Burma)’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Hudson 2004). 냐응우(Nyaung-U) 근방의 골짜기에서도 구석기 유적이 보고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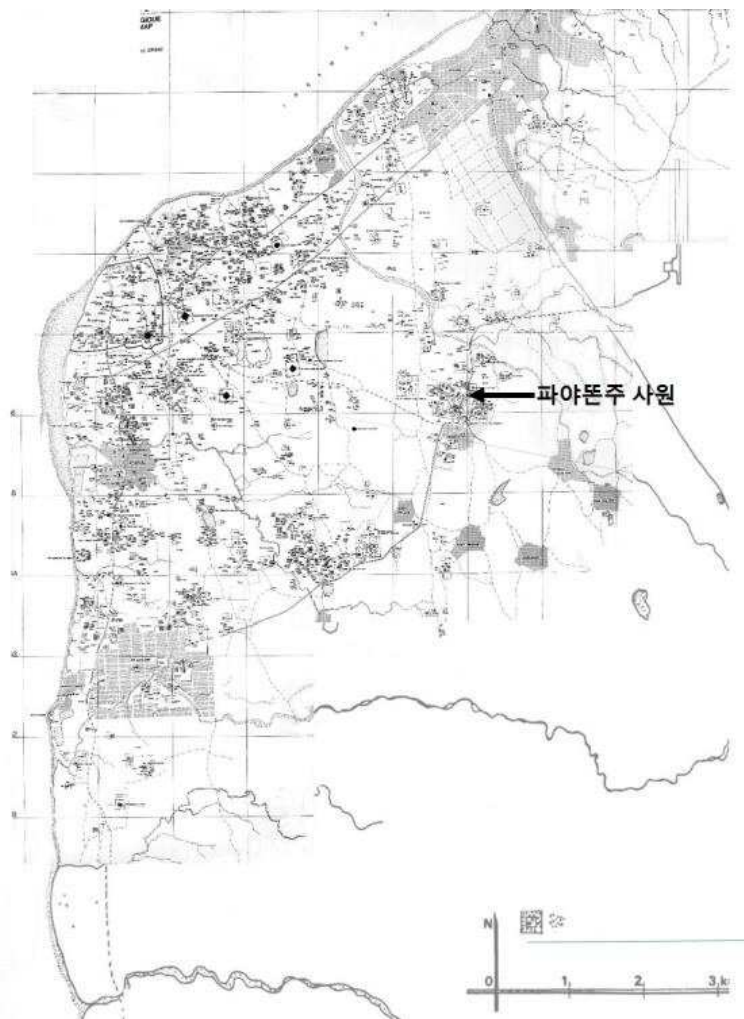
미얀마의 전통적 역사서에 따르면, 바간은 기원 후 2세기에 설립되어, 34대 핀바(Pyinbya) 왕 시기의 849년에 도성이 완공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뽀 도시-국가(Pyu City-states) 시절 작은 농경마을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 인

구를 바탕으로 구 바간 도성이 그 기초를 다진 시기는 대략 9세기 중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Aung 1985). 그 후 서기 1044년에서 1287년까지 바간 왕조의 수도로서 성장·기능하였다. 바간 왕조 이후 인와(Inwa) 왕조의 모닌타도(MoNyinThado)왕은 1426년 바간 지역 건축물의 수를 조사하게 하였는데 4,474기로 보고되었다고 한다(Lat 외 2010). 도널드 스타트너(Donald M. Stadtner)는 약 250 여년 기간 동안 바간 왕조 및 유력인들에 의해 훨씬 많은 약 14,000 개의 종교건축물들(약 1,000 탑, 10,000 작은 사원, 3,000 승원) 및 주변 평야에 건설했다고 한다(Stadtner 외 2011). 이 시기 바간은 아시아 불교문화의 중심지로서 번영을 누렸다. 이웃한 인도, 스리랑카 및 크메르 왕조의 많은 승려들이 바간으로 모여들었으며 이를 통해 상좌부불교(Theravada Buddhism)를 중심으로 다양한 불교종파가 꽃을 피웠다(Liberman 외 2003). 사회경제적 번영과 국제적 불교문화 분위기 속에서 불사를 통해 공덕을 얻



〈그림 3〉 미얀마의 세계유산 현황

원하는 미얀마 불교문화(Spiro 1970)가 발전해 많은 이들이 불교건축물의 조성을 후원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단기간 내에 건축물들을 완공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성숙하였고 이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수많은 종교건축물들이 250여년 이내에 조성될 수 있었다.



〈그림 4〉 바간 유적 및 파야똥주 사원 위치



〈그림 5〉 오테인타웅(Otein Taung) 전경



〈그림 6〉 바간 왕궁 터 유적

바간 왕조의 몰락은 몽골 침략(1277 - 1301)과 연결해 설명되어 왔지만, 중부 저 평원 지역에 위치한 바간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었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Liberman 2003). 명확한 역사적 배경은 논의 중에 있지만 한 때 5만에서 2십만 정도의 인가로 번성했던 구 바간이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반 쇠락의 길을 걸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 시기 상(上)버마(Upper Burma)에 새롭게 등장한 민샤잉(Myinsaing) 왕조에게 주도권을 물려준 이후 바간은 수도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잃게 되었다(Aung 1985).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간 왕조는 9세기 중엽 기초가 마련되어, 11세기에서 14세기 동안 전성기를 구가했는데 선사시대와 바간 왕조 시대 사이 시기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는 바간 왕조의 기원과 관련된 학술적 질문과도 연관이 있다. 9세기 중국 남조(南詔, Nan-chao) 침략의 여파로 인한 기존 썩 도시-국가들의 몰락과 함께 바간이 새로운 중심지로 등장했고, 이후 하(下) 미얀마 몬(Mon) 왕조에 대한 정복과정에서 몬 엘리트 문화가 바간에 유입되어 바간 중흥의 기초가 되었다(=The Mon Paradigm)는 역사 서술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학계에서는 바간 지역 자체에 존속했던 썩 시대의 문화적 토양에 기초해 바간 시대가 꽃을 피웠다(=The Pyu Paradigm)는 가설(Aung 외 2012)이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다.

대량의 토기가 제작되고 있었다는 증거는 당시 제법 많은 인구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밥 허드슨(Bob Hudson 2004)은 박사학위 연구의 일환으로 토기생산 유적 오테인 타웅(Otein Taung)을 발굴하였는데(그림 5), 이를 통해 바간에 최소한 9세기에는 제법 큰 규모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실증하였다(Hudson 2004). 바간 왕조의 전성기 약 2백여 년 이전부터 바간은 성장하는 지역이었음을 실증한 것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썬 시대 불상들이 바간 사원들에서 발견되었고, 쉘산도(Shwe-Hsan-Daw) 및 짜진파야(Kya-Zin-Phaya) 사원에서는 썬 시대의 봉헌문(votives)이 발견되어 바간 왕조 이전부터 이곳이 삶과 종교 활동의 터전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듯하다.

바간 왕조 시대 고고학 조사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그간 수차례 발굴을 바탕으로 2003년 조성된 아노야타 왕궁(Anawrahta's Palace) 유적지(그림 6)와 구 바간 성곽 발굴(그림 7)을 들 수 있다. 이들 발굴은 통일 왕조로서의 바간 왕조의 위엄을 잘 보여주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전 썬 시대 도시국가 시대에 비해 도성의 크기는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Bob Hudson 외 2002). 정치적 확장과 도성의 규모가 반비례한 바간의 사례는 도성 연구에 있어 흥미로운 시사점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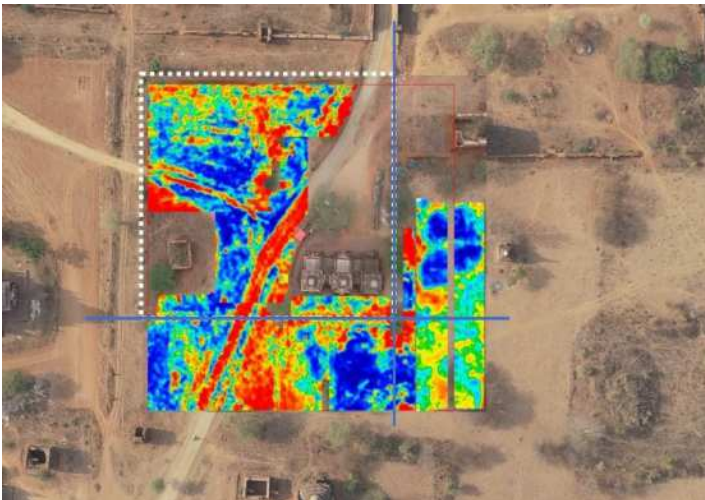


〈그림 7〉 구(舊)바간 도성 타라바(Tharabar) 성문과 해자 전경

2. 조사개요 및 경과

파야똥주 사원 주변의 고고학조사는 파야똥주 프로젝트 중 사원에 대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고고학조사는 파야똥주 사원 및 주변 기단부 그리고 주변 사원과의 연관관계에 대한 고고학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였고 두 번째는 수원기관 (DoA: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National Museum) 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파야똥주 주변에 대한 고고학조사는 2019 상반기의 지표조사와 하반기의 발굴조사로 나눌 수 있다. 상반기에 진행한 지표조사는 파야똥주 사원을 중심으로 동-서 약 100m, 남-북 약 110m에 이르는 면적(약 11,000m²)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방향의 조사대상지를 임의의 세 구역(A, B, C)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지표조사를 실시하면서 미얀마에서 최초로 GPR 탐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지표조사가 진행된 면적과 동일한 구간에서 GPR 탐사를 진행하였는데, 미얀마



〈그림 8〉 파야똥주 주변 GPR 탐사 결과

고고학 분야에서는 최초의 시도이고 수많은 매장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미얀마 바간 지역에서의 새로운 시도는 종교문화 부 및 타 국제기관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지표조사 결과 A구역에서는 발굴조사 후 노출하여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왕궁 터 유적에서 확인된 것과 유사한 형태의 기둥구멍(Post Hole) 10여기가 확인되었다. 이 기둥구멍은 왕궁 터의 그것과는 크기 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평면형태가 원형으로 같은 모양이고, 원형으로 만들기 위해 개별벽돌을 사다리꼴 형태로 만든 것으로 보아 같은 목적으로 만든 유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C구역은 파야똥주 사원을 포함하는 구역으로 지표조사 결과 사원의 남쪽에 동-서로 연결되는 기단부의 흔적이 노출되었으며 승원주전자(Libation Jar 또는 Kendi(Dawn 2003))의 주둥이(Spout)가 다수 확인되었다.

B구역에 있는 사원 537의 남서쪽에서 담장의 모서리로 추정되는 벽돌 무더기가 확인되었다. 트렌치 4에서 노출된 담장의 모서리와 대칭되는 유구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파야똥주 주변의 담장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도출될 것이다.

이번에 바간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GPR탐사는 한국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탐사 방법으로 아시아에서도 한국이 가장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GPR은 Ground Penetrating Radar의 약자로 기계에 부착된 전자파를 지하로 보내서 돌아오는 파장의 반사를 측정하여 지하에 매장된 재질의 특성을 깊이별로 파악하는 물리탐사의 한 가지 방법이다. 발굴조사보다 정밀한 조사는 아니나 짧은 시간에 지하에 매장된 유구의 부존 가능성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기에 유용한 방법으로 특히, 석재나 벽돌 등 매질이 단단한 물질이 지하에 있을 경우 그 결과 값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한국에서도 경주 월성, 첨성대 하부구조 등의 조사가 발굴조사와 함께 진행되어 효과적

인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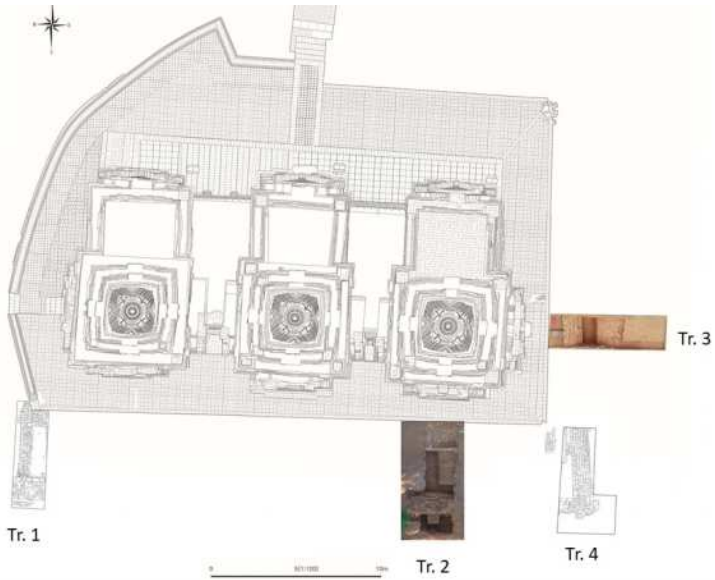
바간에서 GPR탐사를 진행하게 된 것은 바간 유적이 굉장히 넓은데 비해 지상에 있는 사원의 보수 및 복원에 집중하고 지하의 매장유구의 관리가 빈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지하에 매장된 문화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향후 관광, 지역개발 등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매장유구의 손실을 막으면서 바간의 유적관리와 개발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GPR탐사가 진행된 이유이자 목표였다. 다행히 수원기관인 고고학국립박물관에서도 GPR 탐사의 긍정적인 측면을 높이 평가하여 2020년 조직개편을 통해 GPR탐사 팀을 새롭게 발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IV. 파야똌주 사원 발굴조사 결과

1. 조사 방법

2019년 상반기의 지표조사와 GPR탐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미얀마 연합팀은 발굴조사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발굴조사는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남쪽과 동쪽에서 노출된 벽돌렬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3개의 트렌치를 구획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담장이 확인되어 담장의 남동쪽 모서리 파악을 위한 추가 트렌치를 구획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총 4개의 트렌치를 조사하였다.

개별 트렌치는 2m의 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그 길이를 달리하여 진행하였다. 제토는 유구의 바닥선이 노출되는 선까지 진행하였고 실측과 사진촬영을 통해 조사과정을 기록하였다.



〈그림 9〉 파야똥주 트렌치 배치 및 유구 노출 상황

2. 조사 결과

(1) 파야똥주 원 기단부(Original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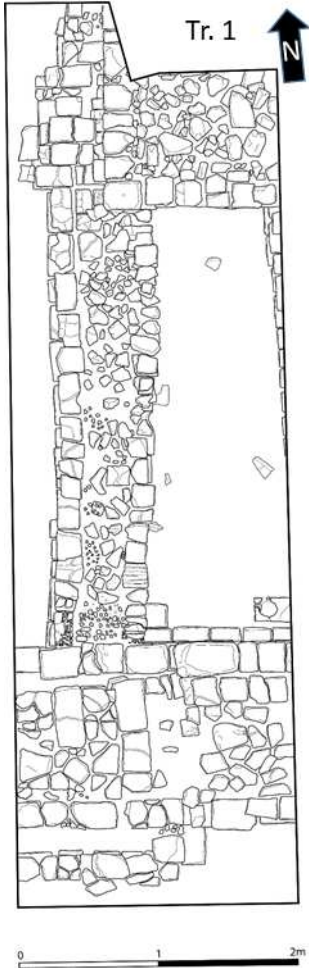
발굴조사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상된 결과물 중의 하나는 파야똥주 사원의 원 기단부의 존재였다. 이미 2019년 상반기의 지표조사에서 그 흔적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발굴조사에서는 그 흔적의 구체적인 고고학적 증거를 찾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파야똥주의 원 기단부는 이번 발굴조사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특히, 사원의 남쪽과 남서쪽에서 복원된 현 기단부보다 바깥쪽으로 약간 더 넓게 조성되었던 흔적이 노출되었다(그림 10~13).

파야똥주의 원 기단부는 트렌치 1, 2, 4에서 노출되었다. 복원된 현재의 기단부에서 남쪽으로 약 100cm 가량 벽돌렬이 이어지다 동쪽으로

꺾

여



〈그림 10〉 Tr. 1 평면



〈그림 11〉 파야똥주 원 기반부 조적 상태



〈그림 12〉 파야똥주 원기단부 및 하부 퇴적



〈그림 13〉 파야똥주 담장, 기반부 관계

이어진다. 이번에 확인된 원 기반부는 파야똥주 사원의 남-북, 동-서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현재 사원의 남-북 방향은 정 남북에서 동쪽으로 약 4° 정도 틀어져 있다. 트렌치 1에서 확인된 사원의 원 기반부

역시 이와 같은 각도의 방향으로 틀어져 있어 남-북의 방향이 정확하게 사원의 방향과 일치한다.) 잔존한 파야뜯주 원 기단부의 벽돌은 가장 두터운 곳이 총 4매에 이른다. 특히,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남서쪽 모서리에는 주변의 벽돌보다 두껍고 단단한 벽돌을 사용하여 힘을 잘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아래쪽에 사암을 끼워 넣어 기단의 견고성을 높이고자 한 듯하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파야뜯주 사원의 기단부는 상면 일부가 이미 훼손 또는 멸실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원의 규모에 비해 매우 얇은 기단부를 가지고 있다. 사원의 하중과 전체 중량을 추정해보았을 때 이러한 규모의 기단부가 과연 건물의 기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기단부에 대해 미안마 고고학자들은 아난다의 예를 들며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인도 팀에 의해 복원정비된 아난다사원의 고고학적 조사에서도 채 1m가 되지 않은 두께의 기단부가 확인되었다. 아난다 사원의 높이가 53m에 이르고 바간에서 가장 큰 사원에 속하는데 이러한 빈약한 기단부 위에 대형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바간만의 특별한 기술이 있을 수 있다. 바간(또는 바간 시기)에서 건축된 벽돌 조적건물이 가지고 있는 건축적인 특징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바간 전체에 걸쳐 조성된 지층과 지반에 대한 연구가 복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건축물의 규모에 비해 얇게 조성된 기단부의 의문점과 함께 파야뜯주 기단부의 해석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원의 남쪽 전체에서 확인되는 원 기단부는 사원의 동쪽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파야뜯주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과의 중복 양상을 보았을 때 동쪽에서 기단부는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파야뜯주의 원 기단부가 방형일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조사하였으나 기단부의 형태가 방형이 아닌 담장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형태로 확인되었기 때

문이다. 이는 사원의 하부 조사 또는 추가적인 기반부 노출을 위한 조사로 밝혀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담장(Enclosure Wall)

이번 발굴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담장의 발견이다. 바간 전체, 특히 파야똥주 사원이 속한 민난투 마을과 그 주변에서 확인된 건축물들은 하나 또는 두 개의 담장 안에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8).

민난투 마을 근방 레미엣나 콤플렉스((Le-Myat-Hna Complex)는 동측에 위치한 아마나 저수지(Amana Reservoir)를 끼고 1192년에 입지가 선정된 후 유력 기부자의 후원을 받아 벽돌로만 만들어진 담장(*ut-ti plu sotantuin*)을 둘렀다고 비문에 기록되어 있다(Tun Than 2002). 이를 통해 내부 건물들을 조성하기 이전 넓은 담장 구획이 먼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223년 12월 17일, 31년 이후 콤플렉스가 완공을 기념하는 비문에는 그간의 콤플렉스 조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불(四佛)을 모신 중심 탑형사원(hollowed stupa-shape temple)과 더불어, 승방, 도서관 및 각종 의례건물들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Tun Than 2002).

파야똥주 사원의 주변에는 기능을 달리하는 몇 개의 건물들을 담장으로 구획하여 내부에 배치한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1기의 탑이나 사원을 담장으로 구획한 사례에서 수십 개의 건물들을 구획한 사례(신부신 콤플렉스, Hsin-Byu-Shin Complex)까지 담장 내 건물의 수는 다양하다.

물론 바간 내에는 담장의 구획이 없는 탑이나 사원들도 다수 존재한다. 전술한데로 그동안 파야똥주 사원은 이처럼 담장 구획이 없는 사원으로 여겨졌던 것 같다. 그런데 상반기 지표조사 과정에서 조사팀은 사원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벽돌렬을 다수 확인한 바 있고, 이를 근거로 파야똥주 사원을 둘러쌌던 외곽담장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

한 바 있다(한국문화재재단 2019).

담장에서는 특이한 조적방식이 확인된다. 담장의 남쪽과 동쪽에서 사용된 벽돌의 크기와 색상이 다르다. 크기와 색상이 다른 것은 벽돌을 구워낸 가마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건축물을 조성하는데 성격이 다른 벽돌을 쓴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사원의 남쪽에서 조사된 트렌치 1, 2에서는 두꺼운 벽돌(대체적으로 길이, 너비, 두께 = 40×20×8cm)이 동측의 트렌치 3에서는 상대적으로 얇은 벽돌(대체적으로 길이, 너비, 두께 = 30×15×6cm)이 사용되었다. 벽돌의 색상도 다르게 관찰되는데, 트렌치 1, 2에서 사용된 벽돌은 주황색에 가까운 반면 동쪽에서 사용된 얇은 벽돌은 회색빛이 도는 주황색이다. 이러한 벽돌의 차이 때문에 조사 초기 남측과 동측의 벽돌렬이 별도의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두 트렌치간의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조사된 트렌치 4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확인되었다.



〈그림 15〉 담장 남동모서리 조적방식

트렌치 4는 담장의 모서리가 확인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에 구획하여 조사된 트렌치다. 조사결과 트렌치 4에서는 담장의 남동쪽 모서리가 확인되었다. 트렌치 4에서 확인된 남동쪽 모서리에서는 두 가지의 벽돌

이 함께 사용된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아래 부분에는 얇은 벽돌을 매우 조밀하게 조적하고 그 위에는 두꺼운 벽돌을 쌓았다(그림 15). 이것으로 트렌치 2와 트렌치 3에서 확인된 벽돌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담장의 건축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담장을 건축하면서 동일한 규격의 벽돌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담장의 건축 자체에 목적을 두고 다양한 벽돌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발굴 과정에서 확인된 담장의 해석문제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는 현지에서 자문을 해 준 미얀마 고고학자들 대부분이 주로 생각하는 플린스(Plinth)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한국 팀 및 일부 미얀마 고고학자들이 주장하는 사원 구획 담장이다.

고대 신라 경주의 김대성을 연상시키는 바간 시대 아난타수라(Anantasura)라는 유력자와 그의 아내의 후원으로 1223년 완공된 레미엣나 콤플렉스 비문에는 플린스와 관련된 흥미로운 묘사가 등장한다.

“(민난투 마을 근방) 아마나(Amana) 인공저수지 주변에 야자나무를 넓게 심고, 그 주위를 이중의 벽돌로만 이루어진 담장으로 구획하였다. 그 담장 내에 깔라사 항아리(Kalasa Pot) 항아리 모양의 플린스(Plinth=cankram)를 놓아 (진신사리와 四佛을 모실) 속이 빈 탑을 그 위에 올렸다. ……” (Tun 2002, 67)

미얀마 현지 전문가들은 바간 시대 찬크람(*cankram*)이라 불린 탑이나 사원건물의 하부 기초시설을 플린스라 부르고 있는데,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 온라인 영어사전에는 플린스를 ‘일반적으로 방형의 기초부(a usually square block serving as a base)’라고 정의하고 있어⁵⁾, 합당한 번역어라 할 수 있다.

파야똥주 주변에서 플린스를 가진 대표적인 사원은 탐블라와 레미엣나가 있다. 두 사원 모두 탑형사원 및 조적사원의 기초부가 밖으로 넓게 연결되어 사원의 규모보다 넓은 면적의 제법 높은 기단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단부가 탐블라의 경우 130cm, 레미엣나의 경우 약 200cm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그림 16). 또한 이 플린스들은 사원을 둘러보며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넓게 구성되어 있다.

5)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plinth>



〈그림 16〉 탐볼라(좌)와 레미엣나(우) 사원의 플린스

파야똥주 남쪽에서 확인된 벽돌렬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트렌치 2에서 확인된 벽돌렬은 잔존 13단이며 그 위에 기울어진 벽돌들이 확인된다. 이 벽돌들은 무너지는 상태를 보여주며 노출되었는데 무너진 방향이 안쪽(북쪽, 사원 쪽) 방향이다. 만약 벽돌렬이 플린스라고 가정한다면 플린스는 기단의 역할을 하며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내부가 꼭 차 있어야 하고 공간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트렌치 2에서 확인된 벽돌의 무너지는 양상은 명확하게 사원 방향으로 쏠리면서 무너진 흔적이 확인된다. 안쪽이 꼭 차 있었다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두 번째, 트렌치 2에서 확인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벽돌렬의 안쪽(사원 방향) 부분에서 벽돌을 쌓은 후 깎거나 다듬은 흔적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물론 다른 사원의 플린스에서도 벽돌을 일부 깎은 것들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외부에서 보이는 면에 국한된다. 만약 파야똥주에서 확인된 벽돌렬이 플린스의 일부라면 굳이 노동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안쪽 면을 깎아서 다듬을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이는 벽돌렬 안쪽이 플린스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레미엣나, 탐볼라 사원의 담장에서 양쪽을 모두 깎고 다듬은 흔적이 발견된다. 이 두 가지의 증거로 파야똥주 사원의 남쪽에서 확인된 벽돌렬은 플린스보다는 담장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담장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남쪽의 담장렬이 서쪽 파야똥주 사원



〈그림 17〉벽돌을 깎아 만든 담장(좌:레미엠타, 우:나라띠하파띠)

바깥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데 트렌치 1에서 드러난 벽돌렬을 따라 서쪽으로 확장 조사한 결과 담장의 남쪽 벽돌렬은 서쪽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상반기 지표조사와 GPR 탐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537번 건물의 남쪽과 남서쪽 도로 옆에서 확인된 벽돌렬은 파야똥주 담장과 연결되어 넓은 담장이 구획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담장과 건축물의 관계

발굴 현장을 찾아 자문을 통해 의견을 주신 현지전문가들의 소위 ‘플린스 가설’의 근거 중 하나는 사원과 벽돌렬 특히 사원 동측의 벽돌렬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자료는 주변 사원 들에서 살펴보았는데, 담장 내 건물의 배치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그림 18). 파야똥주 사원에서 북쪽에 위치한 551번 사원과 이웃한 건물들은 담장 코너에 거의 밀착되거나 심지어 담장을 활용하여 건축물을 연결해서 활용한 패턴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담장과 충분한 거리가 ‘플린스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발굴 과정에서 확인된 남측과 동측의 벽돌렬이 담장이라면, 파야똥주 사원 역시 넓은 담장 내 남동쪽 코너 부근에 자리 잡고 있는 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발굴조사 결과 파야똥주 남측에서 확인된 담장과 사원 원 기

단부는 동시대에 축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구조물이 조성된 시기가 층서적으로 다른 시기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아직 유물에 대한 분석이 세밀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나, 남쪽의 트렌치 1과 동쪽의 트렌치 3에서 보이는 퇴적층은 담장이 조성된 이후 꽤 긴 시간이 지난 후 얇은 기단부를 가진 구조물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른 말로 하면 파야폰주 사원 건립 이전에 벽돌렬과 이웃한 다른 건축물이 있었다가 이후 그 위에 얇은 기단부를 가진 파야폰주 사원이 조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트렌치 1에서 확보된 목탄의 연대측정결과가 도출된다면 이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8〉 민난투 마을 구역의 건축물과 담장들

(4) 유물과 연대에 관한 추정

이번 조사에서 연대를 확증할 수 있는 비문이 적힌 유물 등은 출토되지 않았다. 아직 고고학 연구가 많이 부족하여 토기 편, 기와 편 등의 유물은 현재 바간 이전 시대인 뿌 시대 정도와 느슨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이고, 바간 초기/후기를 구분할 수 있는 유물편년 연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에 현지 사정 상 발굴된 유물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2020년 실시해야 할 예정으로 추후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발굴된 트렌치의 벽(Section)에서 확인되는 토층의 퇴적양상은 도음이 되는데, 담장이 축조된 이후 안정적인 2매의 퇴적층이 확인되고 그 위로 급격한 변화가 관찰되는 퇴적층이 3개 층에서 확인된다. 이는 담장 조성 이후 안정된 자연퇴적이 꽤 오래 진행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사원 건물의 벽돌·사암·스투코 및 주변 벽돌 구조물들이 그 위로 쌓여간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얇은 원 기단부가 조성되었는데, 이는 담장과 원 기단부의 조성 시기 간 꽤 긴 시간적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파야똌주 사원은 13세기의 건축물로 알려져 있고 벽화 또한 당대의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사원의 조성 시기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런 퇴적층에서 확인되는 증거로 미루어 담장은 수 세기 이전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생긴다.

이와 관련해서 트렌치 3에서 출토된 작은 석조 불상과 트렌치 4에서 출토된 석조 부조판(plaque)이 주목된다. 트렌치 3에서 출토된 불상은 석회암으로 제작되었다. 크기는 높이와 너비가 각각 8cm, 7cm이다. 이 불상은 연꽃 좌대 받침 위에 두 다리를 포개고 있으며 수인은 전형적인 향마촉지인(*Bhumisparsa Mudra*)이다(그림 19). 현지 전문가들(DoA와 박물관)에 의하면 촉지인 손가락 길이에 편년의 힌트가 있다고 한다. 손가락의 길이가 동일하지 않은 것은 11-12세기에, 같은 것은 13세기 이후 유행했다고 한다. 출토 불상은 손가락 길이가 다르다. 그리고 발

바닥에 새겨진 석가모니의 신성 문양은 11세기 아노야타(Anawratha) 왕대 유행한 것이라고 한다.⁶⁾ 갤러웨이에 의하면, 손가락의 길이가 다르고 두 겹으로 된 연꽃대좌에 가부좌를 하고 있는 불상양식은 아노야타 왕대 후기에서 짤시따(Kyansitta) 왕대에 이르는 시기 불상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한다(Galloway 2006).



〈그림 19〉 파야똥주 출토 불상(좌) 및 바간고고학박물관 소장 불상(우)



〈그림 20〉 사암제 부조판(트렌치 4) (그림 20).⁷⁾

트렌치 4에서는 야차(Yaksha)로 추정되는 사암제 부조판 2점이 출토되었다. 한 점은 도상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이 심하나 다른 한 점은 13세기 이전 또는 뿌시기(Pyu period) 말까지의 도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그림 20).⁷⁾

파야똥주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유물은 승원주전자의 편들이다. 지표조사에서부터 많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주전자의 주둥이(Spout)가 다수 출토되었다. 승원주전자는 종교의례 또는 일상적인 용도로 사

6) Individual Communication with That Zaw (Bagan Archaeological Museum)

7) Individual Communication with Dr. Charlotte Galloway .

용되면서 특히 종교의례에서는 일회용으로도 사용된 적이 있었다는 비문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Zaw Phyo 2012) 주전자의 주둥이가 많이 발견되는 것은 이해가 되나, 그와 관련된 몸통이 매우 드물게 확인되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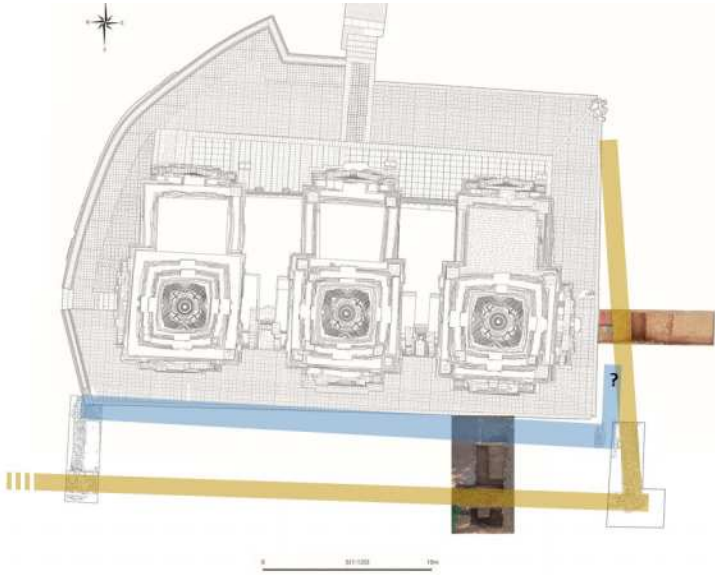
〈그림 21〉 바간박물관(좌), 난다만야 벽화(중, 13c),
꾸바욱지(밍카마) 벽화(우, 12c)-주전자

승원주전자는 켄디(Kendi/Kendika) 또는 리베이션 자(Libation Jar)라고 불리는 데 밍카바 꾸바욱지(GuByaukGyi-MyinKaba), 난다만야(Nandamanya)의 벽화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다.

바간 시대 Kendi의 특징은 얇은 고깔 모양의 주둥이를 가지며 손잡이를 가진 것을 말한다. 일부 학자는 바간에서 출토된 이 유물만의 특징 때문에 “Bagan Pot”이라고 부르기도 했다(Than Tun 2005). 이러한



〈그림 22〉 파이똌주 출토(좌) 할린(Halin)출토(우) Spout



〈그림 23〉 파아똥주 발굴조사 결과 및 유구 배치 상황

특징은 뿌 시기의 주전자와 다른데 뿌 시기의 주전자에서는 주둥이와 몸체와 만나는 부분이 둥글고 부푼 형태인 것이 특징이다. 파아똥주에서는 이러한 유물 중 바간 시대의 특징을 보이는 것과 그 이전 시기의 특징을 보이는 것이 함께 출토되었다. 특히 목탄이 출토된 지점에서 함께 노출된 주둥이는 몸체와 만나는 부분이 매우 넓다. 뿌 고대도시 중 할린(Hallin)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주둥이 또한 몸체와 연결되는 부분이 둥글게 부풀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그림 22)(Hudson 외 2012). 이것은 뿌 시대 주전자의 특징으로 볼 수 있어 담장의 조성 시기가 13세기보다 빠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IV. 맺음말

한국의 문화유산 분야 ODA 사업을 통해 수행된 미얀마 바간 파야똥주 사원의 고고학 발굴조사는 다음과 같은 고고학적 의의를 가진다.

파야똥주 사원에 대한 벽화 보존처리를 최종 목적으로 하여 사원의 고고학적인 배경과 사원의 하부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고고학 조사는 파야똥주 사원 주변의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금번 발굴조사를 통해 파야똥주 사원의 고고학적인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기에는 조사면적, 조사내용 등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었음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또한 사업의 특성상 역량강화에 상당부분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고고학적 성과에 대한 부분은 다소 부족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굴조사를 통해서도 파야똥주의 원 기단부에 대한 양상을 파악하였고 담장의 조사를 통해 바간 시기 이전 다른 시기에도 바간 지역이 점유되고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 것은 바간 지역 고고학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파야똥주 발굴조사는 1. (바간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얇게 조적된 원 기단부, 2. (파야똥주 사원보다 제법 이른 시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다른 크기의 벽돌렬이 만나는) 담장, 3. 이른 시기를 뒷받침하는 유물과 퇴적층의 확인이다. 가장 복잡한 양상을 보인 1번 트렌치를 통해 담장 내부에 추가적인 건축물이 있었을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지표조사에서도 다수 수습되었던 토기 편, 승원주전자(*kendi*) 주둥이 및 기와 편들과 함께 작은 석조불상과 두 점의 사암 부조판은 부서진 벽돌, 사원 스투코 및 일부 사암들과 함께 출토되었는데, 파야똥주의 성격을 확인하는 중요한 유물들도 판단된다. 유물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아직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추후 유구와 유물 그리고 바간 주변 유적과의 비교를 통한 바간의 담장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바간 지역은 1044년에서 1287년까지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바간 왕조의 수도이던 기간 수 천기 이상의 불교 건축물이 건립되었다. 당연히 이들의 기능 및 건축 양식의 다양성 못지않게 입지, 건물 기초 부, 담장구획의 패턴 등도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파야똥주(Phaya-Thone-Zu) 사원이 위치한 구역은 전체 바간 유적으로 보았을 때 레미엣나(Le-Myat-Hna), 나라띠하파띠(Narathihapati) 등의 주요 불교 건축물들과 함께 구 바간으로부터 동쪽에 위치하고, 이곳은 벽돌 담장으로 구획된 개별 불교 승원·사원들이 밀집된 지역이다.

바간 지역 대부분의 사원은 조망과 전망에 유리하기도 하고 우기 동안 홍수의 위협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평지보다 안전한 약간 높은 둔덕에 위치해 있다. 둔덕을 평평하게 다진 후 얇게 구워낸 벽돌 기단 위에 조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건물의 상승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플린스(Plinth)를 쌓아 조적한 사례 역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파야똥주 사원 역시 주변 평지보다 약간 높은 둔덕에 얇은 기단부를 마련하여 조적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측 끝과 서측 끝 사이의 레벨차가 56cm로 제법 크게 나고 있어 주목된다. 사원 조적 이후 발생한 결과인지 아님 당시 의식하지 않고 조적하였는지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적지 않은 이들이 담장에 관해서 플린스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지만, 사원 조적 이전에 쌓은 담장렬로 보인다.

바간 전체, 특히 파야똥주 사원이 속한 민난투 마을 구역에는 1개에서 수십 개에 이르는 건축물들이 벽돌 담장 안에 다양한 패턴으로 구획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바간 내에는 담장 구획이 없는 탑이나 사원들도 다수 존재하는데, 그간 파야똥주 사원은 이처럼 담장 구획이 없는 사원으로 여겨졌던 것 같다. 그런데 상반기 지표조사 과정에서 이미

사원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벽돌렬을 확인한 바 있고, 당시 조사 이후 파야똥주 사원을 둘러쌌던 외곽 담장일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한 바 있다. 트렌치 1에서 확인된 벽돌렬을 따라 서쪽으로 확장·조사한 결과 담장의 남측 벽돌렬은 이어지고 있어 상반기 지표조사와 GPR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537번 건물지의 가까운 남측과 서남 쪽 도로 옆에서 확인된 벽돌렬과 연결된 넓은 담장 구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파야똥주 서측면을 지나는 후대에 형성된 도로가 담장 구획을 파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발굴조사 결과 파야똥주 남측에서 확인된 담장과 사원 원 기단부는 동시대에 축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구조물이 조성된 시기가 층서적으로 다른 시기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파야똥주 사원 건립 이전에 벽돌렬 및 그와 이웃한 기존 건축물이 있었다가 이후 그 위에 얇은 기단부가 마련되고 파야똥주 사원이 조적되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추후 파야똥주에 대한 발굴조사와 연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투 고 일: 2020년 1월 12일

심사완료일: 2020년 2월 24일

게재확정일: 2020년 2월 24일

참고문헌

한국문화재재단. 2019. 『파야똥주 사원 및 주변 지표조사 결과보고서』. 한국문화재재단.

천득염. 2019. “미얀마 파야똥주 사원의 건축적 특성과 형식.” 『황금의 나라 미얀마 - 파야똥주 사원 벽화』. 한국문화재재단.

- Charlotte, Galloway. 2019. “미얀마 파야똥주 사원 벽화.” 『황금의 나라 미얀마 - 파야똥주 사원 벽화』. 한국문화재단.
- Aung-Thwin Michael. 1985. *Pagan: The Origins of Modern Burm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Aung-Thwin Michael and Aung-Thwin Maitrii. 2012. *A History of Myanmar since Ancient Times: Traditions and Transformations*. London: Reaktion Books.
- Charlotte, Galloway. 2006. “Burmese Buddhist Imagery of the Early Bagan (1044~1113).” Ph. D. Dis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Hudson, Bob. 2004. “The Origins of Bagan: The Archaeological Landscape of Upper Burma to AD. 1300.” Ph. D Diss. University of Sydney.
- Hudson, Bob and Nyein, Lwin. 2012. "Earthenware from a Firing Site in Myanmar(Burma) Dates to more than 4,500 years ago." *Bulletin of the Indo-Pacific Prehistory Association* 32.
- Lat, Kyaw. 2010. *Art and Architecture of Bagan & Historical Background*. Daw Nandi Lin (Mudon Sarpay).
- Lieberman, Victor B. 2003. *Strange Parallels: Southeast Asia in Global Context, c.800 - 1830, volume 1: Integration on the Main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ksic, John N. 2002 “Early Burmese Urbanization: Research and Conservation.” *Asian Perspective* 40(1): 88-107.
- Pichard, Pierre. 1992. *Inventory of Monuments at Pagan*. UNESCO.
- Rooney, Dawn F. 2003. “Kendi in the Cultural Context of Southeast Asia.” *SPAFA Journal* 13(2).
- Spiro, Melford E. 1970. *Buddhism and Society: A Great Tradition and Its Burmese Vicissitudes*. New York: Harper and Row.
- Stadtner, Donald M. 2011. *Sacred Sites of Burma: Myth and Folklore in an*

Evolving Spiritual Realm. River Books Press.

Stargardt, Janice. 1990. *The Ancient Pyu of Burma: Early Pyu Cities in a Man-made Landscape*. Cambridge: PACSEA.

Tun Than. 2002. *Buddhist Art and Architecture with Special Reference to Myanmar*. MONYWE.

_____. 2005. *Myanmar Design*. Yangon: Pho Wa Press.

Zaw Phyo. 2012. “Kendi: The characteristic Vessel of Bagan Period.” *Journal of the Myanmar Academy & Science* 9. Myanmar Academy of Arts and Science.

Abstract

Korea-Myanmar Cultural Heritage ODA Project, and Archaeological Significance of Phaya Thone Zu Temple Excavation in Bagan(Myanmar)

JEON Bumhwan, KIM Yongjun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It is not yet mature level since the cultural heritage mission of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has been less than a decade after 2013. Korea's engagement with this field is, in other words, much later comparing with other developed nations. Korea has engaged with very challenging task, and KCHF(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is main agency for it. It is in Myanmar, Laos, Cambodia where KCHF has worked on.

Unlike stone monuments of Khmer Age in Laos and Cambodia, it is relatively unfamiliar brick architecture, Phaya-Thone-Zu temple (13 AD) in Bagan, Myanmar what we have worked on. Along with the required basic tasks for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ur team has tried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wards monument which has not been applied in Bagan. Archaeological investment towards monument and its environs is one of it, we unearth the buried brick-wall and older structure near temple and analysis them through landscape perspective. Result of

our investment is preliminary now and then it is hoped to reveal more holistic context of monuments after absolute dating and other studies. We hope that our approach will be appreciated as a pilot case project towards monument in Bagan, Myanmar.

Keywords: ODA, Phaya-Thone-Zu Temple, Bagan, Multi-disciplinary Approach, Excavation